1980년 그날, 11살 아이는 왜 죽었나



이안의 Media In Buddha

㊶ 영화 〈송암동〉



영화 〈송암동〉 국회 시사회에서 이조훈 감동이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 송암동 학살 사건 조명한 영화
민간인 학살 과정, 입체적으로 재구성

5월, '계절의 여왕' 딱 그 말처럼 덥지도 춥지도 않고 햇살 좋은 시절,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같은 모든 좋은 관계성의 날들이 다 들어있는 달. 딱 그런 5월의 어느 날이었다.

광주시 외곽 한적한 마을 송암동, 사내아이들이 마을 어귀에 다리 아래 물가에 모여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편을 나눠 전쟁놀이를 하기로 했다. 한쪽은 국군, 다른 한쪽은 적군. 자기는 적군 하기 싫다는 아이에게 전재수 어린이가 아주 당차게 말했다. "나는 커서 군인이 되어 우리나라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 편이 국군할거야!" 그렇게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지나갔다. 아이들은 군인들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자신이 크면 국군이 되겠다고 다짐한 전재수 어린이도 함께.

그 군인들은 아이들의 손 인사에 응답했다. '진짜 총'에 장전된 '진짜 총탄'으로 탕탕탕탕탕! 놀란 아이들은 달아나기 시작했고, 달아나는 아이들 등 뒤로도 군인들의 총질은 멈추지 않았다. 자라서 자랑스러운 국군이 되겠다던 전재수, 초등학교 4학년, 고작 11살. 형이 도시에 나가 벌어온 돈으로 사 준 고무신이 벗겨지자 그걸 집어들려고 하다가 자신이 롤 모델로 생각하던 국군들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한 아이. 망월동 묘역을 찾은 사람들이면 차마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참담한 어린 희생자.

어떤 역사든 그 피 흘림을 해결하고 책임을 지면 그 피는 희생이든, 영광이든, 오욕이든 과거의 업으로 잘 보내고 현재와 미래는 업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공덕을 쌓을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바로 잡는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가 뒤틀리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세기가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역사가 아직 드리우고 있다면? 그 역사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력과 정체성 자체의 문제라면? 그 역사를 해결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곡하거나 못된 혐의를 뒤집어씌워 당장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거름으로 써왔다면? 그런 악의의 현장에서 자신이 보고 겪은 일을 밝히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고자 하는 목소리가 나타난다면?

이조훈 감독의 〈송암동〉은 이런 진실과 용기로 역사를 지금까지 내내 발목잡으며 뒤틀어 놓고 있는 국가적 범죄에 대해 밝히는 영화다.

1980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폭거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인 지역 광주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봉쇄하기 위해 계엄군이 광주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계엄군이 한 마을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심지어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과 총격을 벌였던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졌다.

'송암동·효천역 민간인 학살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극영화 〈송암동〉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다. 광주에 파견된 특전사 요원들, 그동안 시민들이 저항하기 위해 들었던 총기를 회수하고, 항쟁 과정에서 사망한 시신들을 집으로 운구하기 위해 인근 마을들을 하나씩 돌던 시민군, 인근에 매복하던 계엄군, 그리고 송암동 일대의 주민들이 겪은 1980년 5월 24일 오후 2시부터 벌어진 아군끼리의 오인 사격으로 발생한 군인 희생자들과 그런 어처구니없는 착오에 대한 화풀이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진실은 현장에 있던 당시 현역 계엄군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측이 아닌 진실을 드러낸다. 개발독재 시대였던 1960년대, 서산 간척 사업 당시 강제 노역에 희생된 민간인들과 권력 비리를 다룬 다큐멘터리 〈서산개척단〉(2018년), 총탄에 맞아 쓰러진 시민을 찍은 사진 한 장 말고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1980년 5월 21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의 전남도청 앞에서의 네 시간에 대해 광주를 제대로 알려보자고 마음먹었던 한인회 비디오, 사망한 시민은 한 명도 없다는 군의 목소리, 광주 비디오를 보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너무 많다는 시민의 목소리 등을 모아 광주 항쟁의 현재적 의미를 묻는 다큐멘터리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2020년) 등 드러나지 않은 역사의 진실을 추적해온 이조훈 감독의 네 번째 장편영화다.

국가기구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1980년 5월 24일, 광주 봉쇄를 위해 도심 외곽으로 향하던 11공수여단 소속 공수부대원들이 광주 재진입 작전을 위해 광주 비행장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고 남구 송암동을 지나던 상황에서 벌어졌다. 송암동에서 목포 방향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구축 중이던 보병학교 교도대 전투교육사령부대 소속 대원들이 공수부대원들을 시민군으로 착각, 오인사격이 이뤄졌다. 갑작스러운 교전으로 일부 공수부대원들이 사망했을 뿐 아니라 인근 마을에 있던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됐다. 아군끼리의 오인사격으로 내부 사상자가 발생하자 공수부대원들은 송암동 인근 마을을 수색하며 화풀이로 마을주민들을 연행해 즉결 처분했다. 초등학생부터 6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화풀이로 보복학살을 감행했다. 이 사건으로 민간인 17명, 군인 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역 연극인들을 배우로 등장시켜 민간인 학살 과정을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당시 광주에 파견된 군인의 현장 상황에 대한 추가 증언을 확보해 극영화로 재현한 이조훈 감독은 "단순히 42년 전에 실재했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학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반인도적 범죄'로 책임자를 기소하는 과정까지 따라가고자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1980년 당시 이조훈 감독은 광주효덕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학교가 휴교해서 집에 있었는데, 헬기가 지나가고 총소리가 들렸다"는 기억과 "산 하나 너머 동네에서 아이 2명이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른들이 나도 거기서 놀았다면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감독에게 오랫동안 5.18은 '어떤 연유로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저 공포의 대상'이었다.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을 제작한 이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합류하게 된 감독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계엄군의 제보를 받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영화 〈송암동〉을 만들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국회 시사회에서는 전직 군인이 전화연결로 직접 관객에게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감독은 "5·18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분들 중 80명은 봉분도 없는 행방불명자"라면서 "최소한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찾아내는 게 진실 찾기이고, 책임자들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들을 잠들 수 있게 하는 것은 진실과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취재한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법련사에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희생자 추모재'를 올렸다. 사노위스님들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를 만들고, 민주와 정의, 인권 등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올바르게 발현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재와 영화 〈송암동〉은 같은 발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같은 발원의 실현을 비는 마음으로 영화의 개봉을 기다린다.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㉓

1. 연기의 법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사례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② 부모님을 부처님 모시듯 항상 공경하고 감사하며 생활한다.
③ 나도 남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긴다.
④ 귀하다거나 천하다는 분별심을 버리고 모든 대상을 평등하게 대한다.
⑤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기쁜 삶을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 노력한다.

해설 : 자연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이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다. 인간과 동물과 식물, 자연, 나아가 환경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만이 행복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면 동, 식물이 괴롭게 되며, 그 괴로움은 연결되어 있는 인간에게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환경을 같이 구성하는 모든 중생을 위한 미래를 그려야 할 것이다.

2. 불교는 내가 가진 행동과 언어, 사고의 습관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친다. 삶과 세계를 움직이는 힘인 업(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지 생각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② 똑같은 사람인데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모두 신의 뜻이다.
③ 유쾌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의 결과를 이끌어 내려면 십악업을 실천해야 한다.
④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
⑤ 모든 존재는 영원히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은 상호 간에 영향을 안 받는다.

해설 : 업에 따르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에 기반한 몸과 입으로의 실천이 필요하며,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은 각자와 사회의 업이 만들어낸 것이다. 유쾌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십선업을 지어야 하며 모든 존재의 특징은 한 찰나의 순간마다 바뀌며 상호 간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3. [보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진리의 말씀을 삼보(三寶) 중 법보(法寶)라고 한다.
㉡ 불교에서는 진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
㉢ 십이연기는 부처님의 삶이 12가지로 윤회하는 과정을 말한다.
㉣ 연기(緣起)란 모든 것은 원인을 근거로 생겨나고, 소멸한다는 것이다.
㉤ 중도(中道)는 육사외도들이 말하는 상주론(常住論)과 단멸론(斷滅論)을 가리킨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 십이연기는 윤회하는 모든 중생의 삶으로, 부처님께서는 윤회로부터 벗어나신 분, 연기를 명확히 깨달으신 분이다. 중도란 극단주의를 버리고 바른 인식으로부터 바른 집중까지의 팔정도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럼으로 항상 존재한다는 상주론, 아무 것도 의미가 없다는 단멸론과 같은 극단주의는 중도라 할 수 없다.

4.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涅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생사의 구속을 벗어난 해탈의 경지를 말한다.
② 열반은 죽고 나서야 실현되는 경지를 말한다.
③ 번뇌의 뜨거운 불길이 꺼진 고요한 상태를 가리킨다.
④ 열반은 산스크리트어'니르바나(nirvana)'를 번역한 것이다.
⑤ '반열반(般涅槃)'은 다시 태어남이 없는 완전한 열반을 말한다.

해설 : 열반은 니르바나의 음역으로 완전한 열반이라 할 때는 반열반이라고도 하며 불교의 목표이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생, 로, 병, 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하여 정진하였으며, 이 네 가지 고통에서 벗어나 고요해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그러므로 열반은 죽음의 극복이지 죽고 나서야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5. 다음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 내용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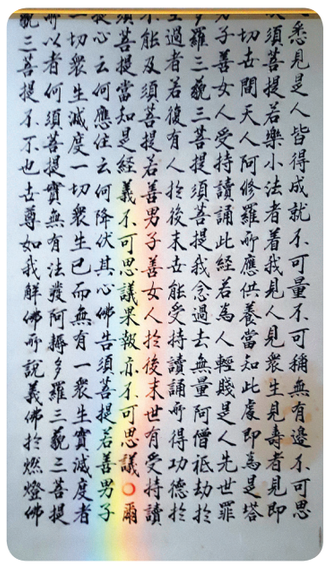
① 삼보(三寶) : 불, 법, 승
② 삼학(三學) : 계율, 선정, 지혜
③ 삼독(三毒) : 탐, 진, 치
④ 삼계(三界) : 욕계, 색계, 무색계
⑤ 삼업(三業) : 상업, 공업, 어업

해설 : 삼업이란 일반적인 중생들이 짓고 사는 업으로 우리는 뜻과 말과 신체적 활동으로 업을 짓는다. 이를 의업(意業), 구업(口業), 신업(身業)의 삼업이라고 한다.

정답 : 1. ① 2. ④ 3. ⑤ 4. ⑤ 5. ②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영혼의 세계 빙의
◉ 전생 빙의 퇴마 ◉
전생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본인들 입으로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 말하게 됩니다

신비의 약손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임신이 안되는 분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상담 가능 천광암 H.P 010-8673-4426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